"훈련여건 된다면 좋은 성적 자신 있다"

부활 선언한 '마린보이' 박태환

부활을 선언한 '마린보이' 박태환(27·인천시청)이 훈련 환경이 나아지기를 간절히 바랐다.

박태환은 21일 인천시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선수 생활을 언제까지 할 지에 대해 지금 말씀드리지는 못하겠지만, 일단 운동을 계속 할 것이다"며 "내년 세계선수권대회(헝가리 부다페스트) 등 앞으로의 계획을 세워 나가려면 훈련할 수 있는 여건이 조금 더 좋아졌으면 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2016 리우데자네이루올림픽 이후 힘들게 훈련했다. 훈련에 조금 더 집중을 할 수 있게 된다면 더 좋은 성적을 내는 것이 가능할 것이라는 기대가 있다"고 강조했다.

2013~2014년 인천시청 소속으로 뛰었다가 올해 9월 2년 만에 인천시청과 다시 계약한 박태환은 한국에서 훈련할 경우 문학수영장에서 훈련을 이어갈 것으로 보인다.

박태환은 "지금은 쉬고 있지만 한국에서 몸을 풀고 훈련을 하게 되면 문학수영장에서 할 수 있으면 좋겠다. 그리고 그렇게 하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전했다.

박태환의 매니지먼트사인 '팀GMP' 관계자는 "한 달 정도 휴식을 취하고 훈련을 시작할 예정이다. 훈련 장소는 문학수영장이 되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설명했다.

인천시체육회는 박태환을 적극 지원하겠다고 약속했다.

인천시체육회 관계자는 "박태환이 2018년까지 인천시청 소속으로 뛴다. 2018년 인도네시아 자카르타에서 아시안게임이 열리는데 전적으로 지원하겠다. 2020년 도쿄올림픽까지 바라볼 수 있도록 지원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날 기자회견에 앞서 유정복 인천시장과 환담을 나눈 박태환은 "좋은 성적을 낼 수 있도록 인천시에서 많이 도와주셨다. 유 시장님이 힘들 때 도와주신 덕에 쇼트코스 세계선수권대회도 좋은 기록으로 마무리할 수 있었다"고 감사한 마음을 전했다.

그는 "유 시장님이 앞으로도 열심히 해서 좋은 모습을 보였으면 좋겠다고 격려하셨고, 나 역시 열심히 하겠다고 했다"고 덧붙였다.

지난 4월 리우올림픽 대표 선발전을 겸해 열린 제88회 동아수영대회를 마친 박태환은 대한체육회 규정 탓에 올림픽 출전이 불투명했던 지난 5월 같은 장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심경을 밝혔다.

박태환은 "국가대표 선발전 이후 왔던 기억이 있는데, 당시에는 마음도 어깨도 무거웠다. 여러 생각이 들었다"며 "그 때부터 지금까지 많은 변화가 있었다. 지금은 마음도 한층 가볍고, 자신감도 생겼다"고 되돌아봤다.

한편 인천시는 '박태환 키즈 아카데미'를

기획 중이다. 인천시체육회 관계자는 "키즈 아카데미를 기획하고 있는데 제2의 박태환을 만드는 프로그램으로 구성할 것"이라고 전했다.

/김민근기자

1위 박인비 최연소 LPGA 명예의 전당 입성

2위 전인지 에비앙 챔피언십 우승

LPGA 선정 올해의 역사적 순간

1위 '골프여제' 박인비 · 2위 '덤보' 전인지

'골프여제' 박인비(28·KB금융그룹)와 '덤보' 전인지(22·하이트진로)가 미국여자프로골프협회(LPGA)가 선정한 올해의 역사적 순간 '톱5' 중 세 자리를 휩쓸었다.

LPGA는 21일(한국시각) 홈페이지에 통해 올해 세계 여자골프에서 역사에 남을 순간을 재조명하며, 1위로 박인비의 최연소 LPGA 명예의 전당 입성을 꼽았다.

박인비는 지난 6월 KPMG 위민스 PGA 챔피언십 1라운드를 마치고 명예의 전당에 헌액됐다. 당시 그는 27세 10월28일 만에 명예의 전당에 가입하면서 박세리를 제치고 역대 최연소 입회자가 됐다.

지난 8월 리우데자네이루 올림픽 여자골프에서 금메달을 차지한 박인비는 역사적 순간 4위의 주인공으로도 선정됐다.

당시 부상으로 LPGA 투어에서 모습을 보이지 않던 박인비는 모두의 우려에도 당당히 올림픽 무대에 도전했다. 116년 만에 부활한 여자골프에서 금메달을 목에 건 그는 세계골프 역사상 처음으로 골든커리어그랜드슬램을 달성했다.

올시즌 신인왕 전인지의 메이저대회 에비앙 챔피언십 우승 순간이 2위에 선정됐다.

전인지는 지난 9월 마지막 메이저대회인 에비앙 챔피언십에서 21언더파로 LPGA 투어는 물론 미국프로골프(PGA) 투어 메이저대회 역대 최다언더파 우승 신기록을 세웠다.

전인지의 에비앙 챔피언십 우승으로 한국 선수들은 2011년부터 6년 연속 LPGA 메이저대회서 1승 이상씩을 거두고 있다.

남은 두 자리는 LPGA 투어 올해의 선수와 상금왕에 빛나는 태국의 에리야 쭈타누깐이 차지했다.

지난 8월 브리티시 오픈 우승으로 태국인 최초 메이저대회를 재패한 장면과 지난 5월 한 달간 LPGA 투어 3연속 우승이 역사적 순간 3위와 5위로 기록됐다.

/김민근기자

삼성생명, 통산 20번째 종합탁구선수권 우승

삼성생명이 20번째 종합탁구선수권대회 우승의 금자탑을 쌓았다.

삼성생명은 21일 인천 계양체육관에서 열린 제70회 종합선수권대회 남자 단체 결승전에서 미래에셋대우를 3-0으로 완파했다.

지난해 선수 등록 착오로 인한 실격패로 준결승에도 오르지 못했던 삼성생명은 미래에셋대우의 2년 연속 우승을 저지하며 트로피에 입을 맞췄다.

삼성생명 남녀 탁구단이 국내 최고 권위를 자랑하는 이 대회 단체전의 패권을 차지한 것은 이번이 20번째다.

삼성생명은 그동안 종합선수권 최강팀이었다. 여자팀은 전신인 제일모직(47회~52회) 시절을 포함해 9연패의 대기록을 썼고 남자팀 역시 51회부터 57회까지 타이틀을 석권했다. 19번째 우승 이후 1년 간 발이 묶였던 삼성생명은 남자팀의 우승으로 아홉수에서 벗어났다.

양 팀은 1단식에 에이스인 이상수(삼성생명)와 정영식(미래에셋대우)을 내세웠다.

이상수가 먼저 두 세트를 따냈다. 정영식은 이상수의 기세에 막혀 1,2세트에 각각 3점과 5점을 얻는데 그쳤다.

정영식은 3세트를 듀스 끝에 따내며 분위기를 바꿨다. 4세트에서는 이상수를 4점에 묶어두면서 세트스코어 2-2를 만들었다. 마지막 세트까지 이어진 승부에서 웃은 이는 이상수. 이상수는 특유의 저돌적인 공격을 앞세워 정영식의 끈질긴 추격을 뿌리쳤다.

분위기를 가져간 삼성생명은 정상은과 이상수-박강현 조가 승리를 추가해 우승을 확정했다. 다음 달 군입대를 앞두고 있는 이상수는 후배들과 함께 거수경례 세레머니로 잊지 못할 추억을 남겼다.

여자 단체전에서는 포스코에너지가 미래에셋대우를 3-0으로 완파했다. 2011년 창단 이후 첫 종합선수권 우승이다.

전지희-이다솜 조는 앞서 열린 여자복식에서도 서효원-유소라(렛츠런파크) 조를 3-1(9-11 11-9 11-5 11-6)로 완파, 대회 2관왕에 올랐다.

/김민근기자

일·가정 양립 우수기관 시상식
국민체육진흥공단 여성가족부장관 표창

국민체육진흥공단은 20일 대한상공회의소 국제회의장에서 열린 2016년 일·가정 양립 우수기관 시상식에서 여성가족부장관 표창을 받았다.

공단은 '행복한 일터 만들기 프로젝트'를 통해 가족친화 경영을 선포하고, 일과 삶이 균형을 이루는 조직문화를 만들기 위해 노력했다. 유연근무제 활성화, 남자 직원의 최대 3년간 육아휴직제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시행했다.

이창섭 공단 이사장은 "직원들이 신명나게 일할 수 있는 근무여건 조성을 통해 공단이 앞으로 국민 스포츠 복지를 증진하는데 이바지하겠다"고 했다.

한편 공단은 문화체육관광부 주최, 국가브랜드진흥원과 한국출판문화산업진흥원이 공동 주관한 2016년 독서경영 우수직장 시상식에서도 최우수상을 수상했다.

/김민근기자